

●● 빅터 반 슬링어 대표 인터베트코리아(주) 대표

우수한 인재의 육성이 경쟁력



▲ 빅터 반 슬링어

199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Vrije 대학교 Econometrics & Operation Research Masters degree
2000~2005년 인터베트인디아 대표
2005~현재 인터베트코리아 대표

국내 축산업 시장은 점점 개방화 물결이 거세짐에 따라 이와 동시에 동물약품업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베트코리아 빅터 반 슬링어 대표를 만나 국내외 동물약품시장의 동향과 동사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내외 축산업 동향은?

현재 한국의 축산업은 급속한 변화에 서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도 독립적인 축산업 형태로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EU회원국으로서 시장개방에 문을 열고 있으며 상호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시장도 FTA 등 시장개방화 물결로 인해서 시장개방이 촉진될 것이며 축산업도 그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도 변화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시장은 사람에 의한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과 이슈들이 상재되어 국내 축산업을 세계화로 향한 준비와 함께 국내의 요소들을 조화시켜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동물약품시장의 흐름은?

동물약품시장은 과거 질병발생에 따른 치료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앞서서 고객입장에서 주요 질병의 예방과 관리·생산성향상·식품안전성 등에 관심을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동물약품시장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성장은 정체되지만 규모는 대형화 현상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나 제품을 가지고 공급하는 기회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자사의 경우 전세계 동물약품의 최상위권으로서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주요 제품도 가지고



▲ 인터베트코리아 임직원

있으며 주요 대륙에 연구시설이 상재해 있습니다. 축산업은 특성상 예기치 못한 변화가 많기에 이에 대비하여 위험분산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한 인재, 우수한 연구개발, 우수한 제품개발을 통해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자사의 경쟁력 확보방안은?

자사는 국제적인 동물약품 회사로서 국내에서도 현재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과거 10위권의 시장점유율에서 현재는 3~4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에 주력할 것입니다.

인터베트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우수한 제품, 우수한 인재,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공급하고 양질의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인재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일정기



간의 교육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실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인재육성 교육을 통해 인터베트 본사 핵심전략팀 멤버로 서승원 상무가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우수한 인재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차별화된 장점 중 하나로 양돈·양계를 포함해서 대부분 수의사 위주로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터베트 양계팀은 100% 수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면서 질병예방·진단·처방에 있어 고객 농장의 만족도를 높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할 정도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자사에서는 우수한 제품공급을 위해 매년 2~4개의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양계분야에서는 산란계에 포커스를 맞춘 가

금티푸스 백신 'SG9R'은 그 효능과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꾸준한 판매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산란계와 종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출시하면서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면역억제성 질환을 예방하여 후대 병아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염성빈혈(CAV)백신과 두부종창증후군(TRT)백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우리의 자세는?

한·미FTA와 같은 세계화 물결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산업, 동물약품 그리고 식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세계화 추세의 하나로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고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의 리더라면 이런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단점이라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리더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양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선진적인 방역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바탕으로 배우고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국외의 축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를 통해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기술을 받아들여 한국 축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 김영훈 기자)